



# 병동속보

## 1호

2023년 6월 27일 화요일

<http://korea.nodong.org>

발행 / 고대의료원지부

발행인 / 노재욱

###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수기 공모 - 고대안산병원 N 간호사

#### ‘배갯잇 하나만 주세요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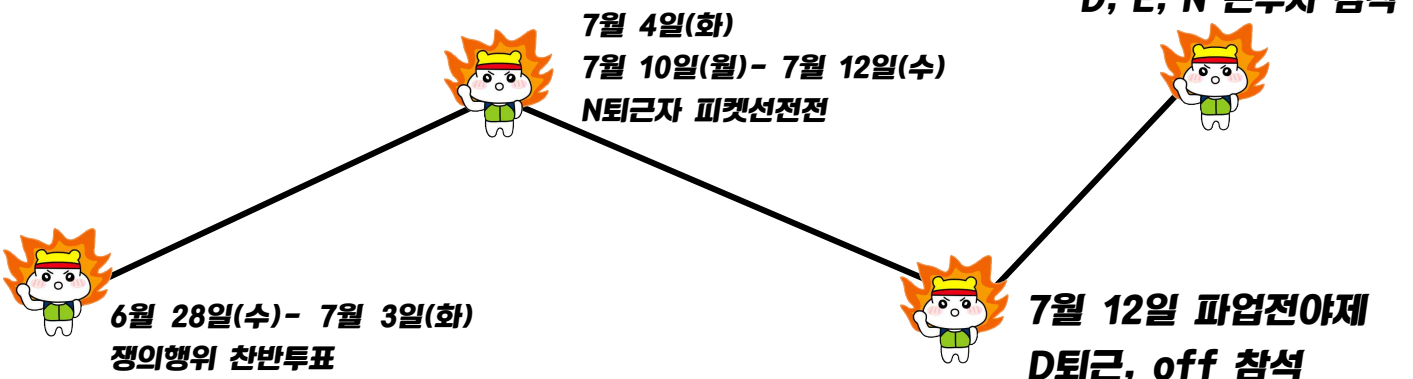
신규 때 일하다 보면 차팅 할 때 외에는 앉을 시간이 없어 다리는 툭툭 부어 할렘했던 신발이 딱 맞아 발가락이 아팠고 출근하기 전 화장실을 안 가면 퇴근할 때 갈 수 있었으며 퇴근 후 집에 와서 본 따끔따끔한 소변이 그날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변이었습니다. 병원에서 밥을 먹는 날은 기적과 같은 날이었으며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한끼할 때 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일할 때는 배고픈지도, 다리가 아픈지도,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도 모른 채 바쁘게 일하며 제 건강보다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신경 썼습니다. “도대체 왜 밥을 못 먹고 화장실을 못가? 물 한 모금도 못 마신다는 게 말이 돼?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?” 친구들이 물어봅니다.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. 제가 일하는 걸 보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저는 이후로 이해받는 것을 포기하고 가족, 친구들에게 병원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며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아왔습니다.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전방터에서 벗어나고 싶어 간호사라는 직업을 덮어두었습니다. 하지만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희의 상황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. 전방터 같은 상황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. 저희는 사람이라면 일생에서 한 번이라도 도움받게 될 간호사이기 때문입니다.

### 어려움과 고충을 얘기해봤자 어차피 안돼?

### 그래서 참으면서 일해야 할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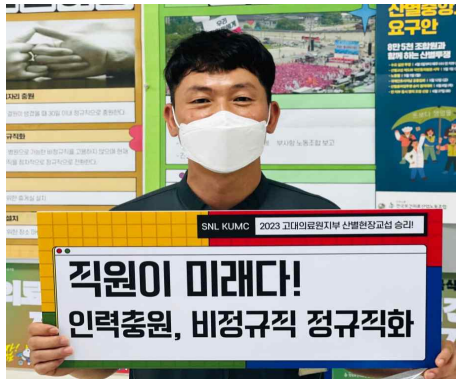
함께 하면 승리한다!

같이 갔다 같이 오는 조합원 일정



# 승리하는 7월 산별 총파업텐션 끌어 올려!

7월 13일 보건의료노조 8만5천 조합원이 함께 파업에 나섭니다. 간병비 해결, 공공의료 확충, 불법의료 근절 우리의 파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업입니다. -> 의료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근무환경도,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위도, 임금인상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.



## 보건의료노조 7대 요구

### ●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

▲ 2026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시행 ▲ 중증환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, 간호조무사 배치 수준 상향

### ●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

▲ 간호사, 간호조무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 적정인력기준 우선 마련 ▲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,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업무범위 명확화

### ●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수 1:5로 환자 안전 보장

▲ 간호등급차등제를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수 기준으로 개편 ▲ 최상위 간호등급 1:5 시행

### ● 의사인력 확충, 불법의료 근절

▲ 18년째 동결하고 있는 3058명 의대정원 확대, 공공의대 설립하여 필수인력 양성 ▲ 의사 업무를 타 직종으로 전가하지 못하게 불법의료 근절

### ●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.2 노정 합의 이행

▲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!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하락하지 않도록 10.73% 임금인상 ▲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! 코로나19 영웅들을 지원하기 위한 9.2 노정 합의 차질없이 이행

##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요구안 심의결과

### ● 임금인상 10.73% (정액 기준 월 44만 7,331원)

수입이 민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. 지불능력 범위 안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.

### ● 인수인계 수당(인수인계 하는 조합원 월 10만 원)

3교대 하는 부서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.

### ● 위험수당 인상(월 10만 원)

임금인상 총액 범위 안에서 검토 가능하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이중 부담이다.

### ● 직무수당 인상(월 5만 원)

검토해보겠다.

### ● 명절수당 인상(기본급의 100%(설, 명절 각각 50%))

정액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봤으면 한다.

### ● 복리후생수당 인상(월 10만 원)

### ● 가족 수당(월 5만 원 지급)

### ● 자기계발 수당(월 5만 원)

임금인상 총액 범위 안에서 검토 가능하다.

**“결론 : 수용불가!”**